

PROGRAM

죽기전에 꼭 들어야할 클래식 TOP10에 추천되는 명곡 !

C. Orff (1895~1982) 오르프
Carmina Burana 「카르미나 부라나」

칼 오르프는 독일의 현대작곡가로서 총체적인 의미를 갖는 극음악을 늘 쓰고 싶어 했다. 1915년에서 1917년까지 뮌헨의 한 소극장에서 지휘 겸 연기 코치를 겸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정통 오페라보다는 극음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음악과 대사, 춤 그리고 연극적인 구성까지 한 편의 작품에 융합되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그것에 의해 이루어진 드라마는 '세계'의 투영이라고 해서 자기의 극작품을 '세계극(Welt Theater)'이라고 불렀다.

칼 오르프는 대표작으로 일약 그를 유명하게 만든 1936년에 작곡한 '카르미나 · 부라나'는 1942년에 작곡된 카롤리 카르미나'와 1951년에 작곡된 '아프로디테의 승리'와 더불어 무대형식에 의한 칸타타의 3부작 '트리온피(승리)'의 제1부 작품이다. 카르미나라는 말은 라틴어로 '노래'라는 뜻인 Carmen의 복수형이고 부라나는 보이렌(Beuren)의 라틴어 이름으로 '카르미나 부라나'는 '보이렌의 노래'란 뜻이다. 이 가곡집은 1803년 독일 뮌헨의 남쪽에 있는 바이에른 지방의 베네딕트 보이렌의 수도원에서 발견된 데서 '카르미나 부라나'란 이름이 붙었다.

13세기 초에 편찬된 오리지널 '카르미나 부라나'는 현재 뮌헨의 바이에른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가곡집에 담긴 노래들은 '골리아드'라고 불리는 떠돌이 지식인 무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으로 중세의 시와 유행가를 모은 가곡집이라 할 수 있다.

오르프는 이 가곡집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얻은 최소한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완전히 현대적인 기법과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 창작한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작곡된 현대음악으로서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렸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명 자동차의 CM과 CF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보이렌 가곡집' 중 24곡을 선별하여 작곡한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술, 여자, 사랑 등 비속한 내용의 라틴어와 칼 오르프 자신이 독일어 가사로 자작한 몇 곡이 있다. 모두 3부로 되어 있는데 서곡은 제1곡과 2곡까지이고 제1부는 '봄'이란 주제로 제3곡에서 제10곡까지, 제2부는 '선술집에서'란 주제로 제11곡에서 제14곡까지, 제3부는 '사랑의 풀'이란 주제로 제15곡에서 제24곡까지이며 제25곡은 처음 제1곡이 반복되는 형태이다.

곡의 중심은 합창에 있으며 소프라노, 바리톤, 테너의 독주자들은 설명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오케스트라는 대규모의 타악기를 써서 강한 임팩트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주제가 되는 소재를 전개함보다 반복을 주로하고, 형식이나 화성은 극히 간결하고 일괄된 리듬이 두드러진다. 또 다성 음악의 대위법적 수법을 배제하고 단성음악인 그레고리안 성가의 영향을 받아 중세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음악이다. 독창과 합창이 있고, 기억만의 연주도 있고, 발레도 있으며, 대사로 나오고 낭송도 나온다. 칼 오르프 자신이 '악기 반주'를 갖고 무대 장면에 의해 보완되는 독창과 합창을 위한 세속 가곡'이라 표현하였듯이 무대 형식의 칸타타이다.

20세기 사조 중에서 시와 음악, 회화 등이 만나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를 이룬 것처럼 사조까지는 이루지 않았지만 '카르미나 부라나'도 극과 음악이 만난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죽기전에 꼭 들어야할 클래식 TOP10에 추천되는 명곡으로 장대한 스케일의 공연을 통해 새로운 천년 경북의 시작을 알리는 개창식을 기념하기에 더할나위없는 공연이 될 것이다.

경상북도립교향악단
기획연주



경북도립교향악단
도민과 도청공무원 가족을 위한

신청사 개청 축하음악회

2016. **3.15 화** 18:30 경북도청신청사내 동락관 공연장

죽기전에 꼭 들어야할 클래식 TOP10에 추천되는 명곡 !

카르미나 부라나 칼 오르프



- 본 전단은 초대권으로 대신합니다. 선착순 900명(1인 1매) **무료입장** 가능합니다.
- 공연중에는 꽃다발증정과 사진촬영을 금합니다.
- 8세이상 입장 가능하며, 공연일시, 장소, 곡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주회 문의 : **교향악단** 053)324-7279

주최 _  경상북도

주관 _  경상북도립교향악단  안동시립합창단  구미시립합창단

 예천여성합창단 **MBC** 안동MBC어린이합창단

본 공연은 **전석무료** 선착순 입장입니다. 연주회 문의: **교향악단** 053)324-7279

GYEONGSANGBUK-DO PHILHARMONIC ORCHESTRA

세상의 모든 음악을 연주하는 경상북도립교향악단

경북도향은 도민 모두가 문화적 자긍심과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문화콘텐츠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다.

병원, 요양원 및 문화소외지역을 찾아서 지쳐있는 심신을 음악으로 힐링함으로써 즐거움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량재역할을 한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창조적 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밝은 미래를 위하여 초·중·고생을 위한 연주회와 교육프로그램에 열정을 다 함으로써 예능교육과 인성 교육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독도지킴이를 위하여 독도 앞바다 선상연주를 한 최초의 오케스트라이며,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3년 세계문화EXPO에서 터키 이스탄불 CRR오케스트라와 합동연주를 극찬리에 하였다.

1997년 9월 창단된 전국 최초의 도립교향악단이며, 현재 제5대 이동신 지휘자와 단원이 함께 배전의 노력을 함으로써 국내 굴지의 교향악단으로 응비하고 있다.

지휘 이동신

경상북도립교향악단의 제5대 상임 지휘자로 취임한 이동신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및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했고 동아대학교 기악학과 겸임교수, 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와 창신대학·계명대학교 및 인제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Post Doctorate Conducting Intern 및 Assistant Conductor로 활동하였다.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지휘 전공으로 우종익, 김현중 교수에게 사사하였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지휘학부 관현악 및 오페라 지휘전공에 입학, Victor Fedetov에게,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세계적인 지휘자 교수 Ilya Musin에게 각각 지휘수업을 받은 바 있는 이동신은 재학시절 '9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부설 루빈시타인

국립극장에서 부지휘자로 활동하며, Mariss Jansons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다양한 오페라 작품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지휘하였고, 최우수 졸업 이후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북도향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지휘자 이동신은 300만 경북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 힘쓰며 음악이 주는 깊이와 감동을 전달할 것이다.



PROFILE



소프라노
마혜선



테너
김성진



바리톤
노은병



지휘자
최상운



안동시립합창단



지휘자
윤동찬



구미시립합창단



지휘자
김도형



예천여성합창단



지휘자
박만진



안동MBC어린이합창단